낡은 정치인 이미지…탈당보다 어려운 공천권 따내기

국민의당 합류 광주·전남 현역의원들 불안한 입지

‘구태’ ‘기득권’으로 몰려
창당후 ‘계륵’ 전략할 수도
“불출마 선언 필요” 목소리도

주승용·장병완 의원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안철수 의원이 창당을 추진하는 국민의당(가칭) 합류를 선언하면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6명이 국민의당 창당에 참여하게 됐다.

이날 현재까지 더민주를 탈당한 수도권 국회의원 6명 중 5명(안철수·김한길·문병호·김영환·최원식)이 국민의당 합류를 선언했다. 따라서 광주·전남지역 의원이 국민의당 소속 의원 과반을 차지한 셈이다.

더욱이 탈당을 고려 중인 광주의 박혜자, 전남의 박지원·이윤석·김영록·이개호·김승남 의원 중 상당수가 국민의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 광주·전남지역 현역 의원이 국민의당 창당의 주축 세력이 돼 가는 모양새다.

따라서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다면 광주·전남지역 현역 의원들의 기여도는 절대적이 된다. 또, 미리 탈당해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천정배·박주선 의원 측과 국민의당이 통합할 경우 신당에 대한 광주·전남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분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현역 의원들의 창당 기여도가 공천 결과로 그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전망이다.

이들 현역 의원은 더민주가 호남에서 민심을 잃은 원인의 상당 부분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 아니라 ‘구태’ 또는 ‘기득권’이라는 낡은 이미지를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 대부분이 국민의당 공천을 받을 경우 ‘도로 더민주’라는 비판을 받게 돼 총선 때 수도권 경쟁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점도 국민의당이나 안 의원으로선 부담이다. 게다가 국민의당 1차 인재영입에서 실패한 3명의 추천에 광주·전남지역 의원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비판도 극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 한 관계자는 “호남 민심은 현역 의원을 그대로 공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창당에 공을 세운 현역 의원들이 ‘계륵’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탈당 의원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더민주가 참신한 인재를 공천할 경우 새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더더욱 현역 의원보다는 유망한 신진인사를 공천하는 데 힘을 써야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기류가 공천 방법 결정과 이후 경선이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모든 지역구에서 경선을 할 경우 현역 의원에게 절대로 유리한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신인들을 발굴, 공천을 해낼지 주목하는 것이다. 또 공천·경선 등이 본격화할 때, 그에 따른 갈등이나 반발이 신당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안 의원 등 당 지도부의 역량과 결단을 주시하고 있다.

창준위 다른 관계자는 “창준위 내 일각에서는 중진급 의원들이 호남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희생과 헌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를 위해 창준위 지도부가 국민을 감동시키는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3일 서울시 마포구 국민의당 사무실에서 열린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기획조정회의에서 안철수 의원과 한상진 공동 창당준비위원장, 박선숙 집행위원장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상임부위원장 김한길, 집행위원장 박선숙

창당준비위원회 인선
한상진 “야권연대 거론 일러”
내달 2일 대전서 창당대회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3일 상임부위원장에 김한길 의원을, 집행위원장으로 박선숙 전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인선결과를 발표했다.

김영환 의원은 부위원장 겸 전략위원장을, 김동철·문병호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정강정책기초위원장은 황주홍 의원이, 당헌기초위원장은 유성엽 의원이 맡았다. 이태규 전 창당실무준비단장은 창준위 실무지원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홍보위원장과 정책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를 영입키로 했으며 대변인은 이태규 단장이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는 한상진-윤여준 공동창준위원장과 더불어 안철수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확정지은 바 있다.

국민의당은 이와 함께,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중앙당 창당대회를 대전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한밭체육관을 포함해 행사장을 물색하기로 했다. 주요정당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태규 단장은 브리핑에서 “통합의 의미도 있고, 중원의 의미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며 “서울에서 대규모 세몰이를 하는 관행을 깨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 “총선을 앞두고 더민주와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말은 심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야권연대 등을 거론할 단계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정당은 전략과 유연성을 가져야 되지만 특히 창당을 앞두고는 원칙과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헬조선’에 희망의 사다리 사라지지 않기를

김은영의 그림 생각

(140) 사다리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언어는 그 자체로 우리들 삶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 같다. 지난 해에 이어 새해 벽두부터 언론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헬조선’ 혹은 ‘수저론’이다. 희망을 기약할 수 없는 청춘들의 좌절이 투영된 단어다.

그런 상황에서도 한 점의 그림에서 잠시 위안과 마음의 화평을 얻고 새삼 예술의 힘을 발견할 때가 있다. 미국 현대미술, 추상표현주의와 색면 회화의 중요한 선구로 평가받으며 뉴욕근대미술관(MOMA)의 첫 여성작가 회고전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조지아 오키프(1887~1986)의 ‘달을 향한 사다리’(1958년 작)는 어쩐지 우리들 마음을 동심에 젖게 한다. 인간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사물의 상징으로, 혹은 무한대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심미적 의미로 사다리가 등장해서일까? 이룰 수 없는 꿈일지라도,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달에까지 닿기 위해 마음의 사다리를 세우고 또 세웠던 지나간 청춘의 시간도 함께 떠오른다.

조지아 오키프는 미술사에서 차지하는 작가로서의 위치와 명성뿐 아니라 뉴욕에서의 성공적인 활동에 이어 만년에 뉴멕시코사막에서 독립적이고 전설적인 삶을 개척한 여성으로서도 독보적이다. 화면에 커다랗게 확대한 꽃과 뉴욕의 마천루, 뉴멕시코 사막 풍경과 공간의 광대함 등 대표작들을 통해 사물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함께 자연의 힘과 불멸성에 대한 믿음을 전해주기도 했다.

작품 ‘달을 향한 사다리’는 뉴멕시코에서 흙집을 짓고 살던 작가가 뉴멕시코 인디언의 삶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사다리에서 영감을 얻었다. 인디언들은 지붕 위에 올라 일출과 오후의 석양을 바라보며 자연 종교의 핵심을 이루는 우주적 힘과 직접적으로 소통했다고 한다. 사다리는 지붕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였지만 더 나아가 우주의 연결, 우주적 의식과 맞닿아 있는 상징이기도 했다.

조지아 오키프 작 ‘달을 향한…’(1958년)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더민주 주류측 “연쇄탈당?…교체 대상들 떠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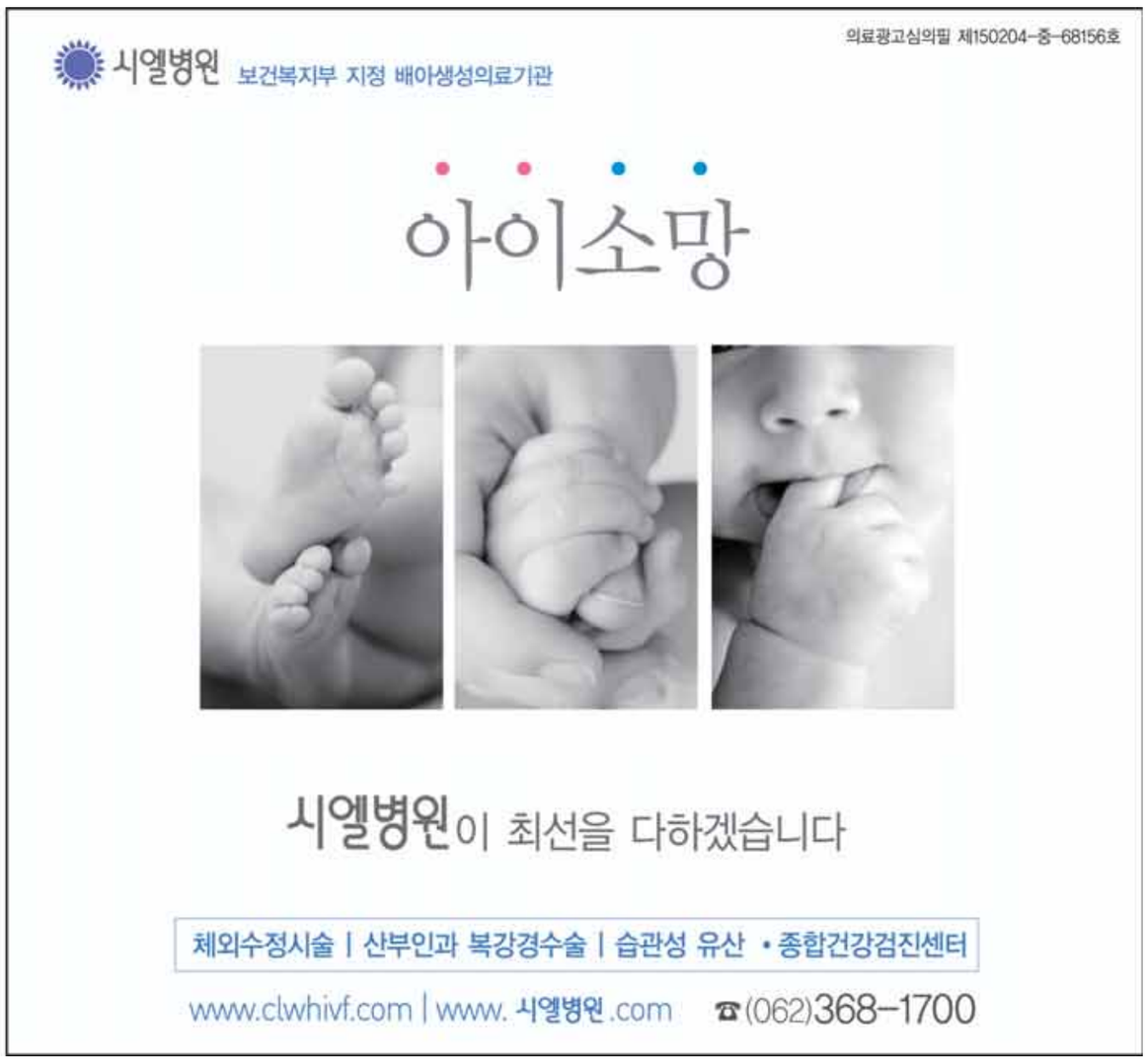
“호남민심 외면한 인사들” 주장…조경태 文대표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주류 측 인사들은 13일 호남·비주류 인사들의 연쇄탈당 움직임에 대해 “교체 대상이 떠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이날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등을 떠밀진 않았지만, (호남민심으로부터) 바꾸라고 지적을 당했던 호남 의원들이 떠난 것이다. 교체 대상이 떠났으니 좋은 대안을 세우는 게 숙제”라고 말했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도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최근의 탈당 흐름에 대해 “호남에서 시작된 탈당바람이 수도권으로 상륙하고 있다는 분석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작 당을 떠나는 의원들이 호남민심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인의 당선을 위해 탈당을 하는 일에 대해 광주 민심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표의 최근 잇단 영입 성과를 언급, “탈당이 줄을 잇고 있지만, 그에 못지 않은 밀물의 힘으로 입당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탈당의 힘보다는 입당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 당은 앞으로 입증해보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탈당한 분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야당의 분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당내 대표적 반문(반문재인) 인사인 조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 권 고문의 탈당을 거론하며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든 문 대표가 지금이라도 빨리 본인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무책임한 정치의 극치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